

젊은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성경 이해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성경해석학의 교과서들 첫 장이라도 읽어본다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순진무구한 말인지 알 수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첫째,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둘째, 성경이 영원한 타당성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사람의 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for) 말씀이지만, 일차적으로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 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 교회에(to) 주어진 말씀이다. 만일 한국어를 사용하는 21세기 한국인에게(to) 직접 주어진 말씀이라면, 고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닌 한국어로 성경이 쓰여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이 우리를 위한(for) 말씀이지만 우리에게(to) 직접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 가장 참된 의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앞뒤 본문과의 관계를 살피고, 본문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연구하고, 다양한 수사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모든 복음주의 성경해석은 이런 논의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신앙이 좋은 태도인 것 같지만 그 말은 사실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대로 믿는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것이다. 물론 신실하고 면밀히 해석해야 한다. 요컨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좋은 해석인가, 나쁜 해석인가만 문제일 뿐이다. 나쁜 해석에 대한 대안은 무해석이 아니라 적절한 해석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문들은 해석이 전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해석이 필요없어 보이는 구체적인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젊은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순진무구한 설명인지를 알아보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으로 충분히 보이는 십계명의 소위 도덕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 해석하지 않고는 적절히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을 말하다



하나씩 살펴보자. 정확한 분석은 없지만,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으로는 자신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형제를 찬성하다니! 이 지적을 받으면 아마도 사형제는 나라의 권세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형제는 하나님께서 국가에 준 권세에 관한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국가의 법으로서의 사형제와 관계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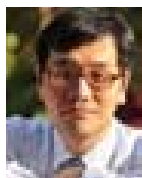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글로 읽어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남성 단수 동사가 사용되었다. 즉, 여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현대 여성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석하기 때문이다. 제7계명이 여성에게도 해당된다고 설명한다면, 그 설명이 남성형 동사가 모든 성을 지칭한다는 문법적인 해석에 토대하든, 한 가정의 대표에게 한 명령은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었던 것이라는 사회학적인 해석에 토대하든, 간음하다라는 동사가 여성형으로 쓰인 다른 본문들과 함께 살피는 정경적인 해석에 토대하든, 그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것이다.

사실 제7계명의 경우 구약 성경의 “간음”의 의미가 현대의 “간음”의 의미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음 계명에서 더 드러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경우,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가 사실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다. 살인과 간음의 경우, 다른 율법들은 그 처벌로 사형까지 말하는 반면, 도둑질은 그렇지 않다. 구약 전체

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범죄가 재산에 대한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그래서 도둑질이 살인과 간음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는 듯한 십계명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 흔히 “도둑질하다”라고 번역되는 동사(“가나브”)가 출애굽기 21장 16절이나 신명기 24장 7절에서는 목적어와 더불어 쓰여 좀 더 구체적으로 유괴 또는 인신매매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해당 구절들에 의하면 그런 범죄는 사형에 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8계명이 절도에 대한 계명인지, 유괴와 인신매매에 대한 계명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바로 해석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지고지순의 신앙 고백이 아님을 보았다. 해석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성경 읽기는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고 순진무구한 것이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단순무지한 것이다. 누구는 해석하고 누구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젊은지구론의 성경 읽기도 해석이다. 모두가 해석한다. 더 적절한 해석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필요하지, 한 쪽의 해석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지면의 한계로 더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젊은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는 허상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역설을 보여주며, 본문의 장르를 분별하지 않아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해석이며, 수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평면적인 해석,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미명 아래 본문의 풍성한 신학적 메시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빈곤한 해석이다. ☺



전성민 전성민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성서언어(M.C.S.)와 구약학(Th.M.)을 공부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구약 내러티브의 윤리적 읽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D.Phil.)를 받았으며, 학위 논문이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라는 제목으로 한국 신학자 최초로 옥스퍼드 신학 및 종교학 단행본 총서로 출판되었다.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의 창립 연구위원이자 현재 초빙연구위원이며,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있다.